

제 89회 굿인터넷클럽

▶ NAVER TV
생중계



신보호주의 속

플랫폼법 으로 사라지는 것들

2024. 7. 4 / 목 10:00

장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

[사회]

· 류푸름 실장(국민대 SME 연구센터)

[패널]

- 백지영 부장(디지털데일리)
- 신순교 국장(플랫폼임점사업자협회)
- 이민형 정책팀장(벤처기업협회)

주최

Kinternet
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후원

NAVER kakao **coupang** **우미한행세돌** **TikTok** **onoffmix.com**

□ 개요

- 주제 :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으로 사라지는 것들”
- 일시 : 2024년 7월 4일 목요일 10:00~11:30
- 장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4층 대회의실
- 참석자

구분	내용
류푸름 실장(사회)	국민대 플랫폼SME연구센터
백지영 부장	디지털데일리
신순교 국장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이민형 팀장	벤처기업협회

□ 내용

질문	22대 국회에서 플랫폼 관련 규제 분위기
답변 (백지영 부장)	<p>22대 국회는 초기부터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당론 차원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 주도할 것을 공식화하기도 했는데요.</p> <p>먼저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대표 발의했고, 25일엔 역시 같은당 민형배 의원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p> <p>두 법안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인용한 것으로 별도 논의 추진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오기형 의원의 법안은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 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이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 의무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p> <p>민형배 의원의 법안의 경우,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p>

	<p>용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 구성권과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해 금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하겠다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과 숙의 없이 플랫폼 규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업계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명분과 취지만 강조할 뿐, 플랫폼 규제 방향성의 실효성과 중복 규제 논란 해결,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스타트업 등 IT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 효과 따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p> <p>앞서 정부(공정거래위원회)도 작년 12월부터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대형 플랫폼업체의 ‘사전지정’을 골자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내기업에만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알리, 테무 같은 C커머스(중국 e커머스)의 위협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p> <p>특히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플랫폼 자율규제와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토종 플랫폼 기업 성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점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플랫폼법은 올해 초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국내외 플랫폼 기업과 산학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의 잇단 반발로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연내 주요 과제로서 플랫폼법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p>
--	---

질문	소상공인들에게 플랫폼의 등장의 의미
<p>답변 (신순교 국장)</p>	<p>■ 새로운 판매 경로와 매출 신장</p> <p>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판매 경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 방식과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노출시키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p> <p>■ 오프라인 영업의 부담</p> <p>오프라인에서의 영업은 임대료나 인건비 부담이 높습니다. 물리적 공간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며, 이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자체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은 개발과 유지비용 등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합니다.</p> <p>■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 활용</p> <p>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로 확대는 중소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므로 초기 비용이 줄어듭니다. 또한 상품 노출이 더욱 쉽고 편리하며, 새로</p>

	<p>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p> <p>■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중소기업자들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 경로를 확장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오프라인의 폐업률은 희망을 걸어두기 어려우며, 자체 물에 회원을 확보하는 것에는 막대한 초기 마케팅 비용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미 안정적인 수요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대세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p> <p>■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 플랫폼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상생방안으로 수수료 할인과 입점 교육등을 제공하며, 플랫폼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p>
--	--

질문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한 벤처 생태계 변화
<p>답변 (이민형 팀장)</p>	<p>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벤처생태계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p>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업들의 혁신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p> <p>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여유 공간을 임대하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고, 우버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통해 기존 택시 산업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또 교육, 의료,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p> <p>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벤처기업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플랫폼의 다양한 리소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활용한 창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p> <p>다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직접적인 해외 진출과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 확장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p> <p>과거에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고,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를 쌓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p> <p>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벤처기업들은 해외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해외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p>

	<p>다.</p> <p>아울러, 벤처기업들이 다양한 전문가, 투자자, 파트너와 연결되는 기회를 확대시켰고, 이는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p> <p>현재 플랫폼은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생태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비용 감소, 가격인하, 품질수준 제고 등 선택의 다양성이 확대되어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판로확보와 매출신장의 기회가 되고,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통한 소비자 효용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p> <p>또한, 이제는 AI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는 벤처기업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p>
--	--

질문	플랫폼이 경제/사회 등 전반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
----	-------------------------------

<p>답변 (백지영 부장)</p>	<p>초창기 플랫폼은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지만,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등장과 빨라진 통신속도로 국민 생활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며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p> <p>경제적으로는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산업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플랫폼은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기업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정보 교환과 글로벌 시장 접근을 가능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p> <p>이는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큰 기회를 제공해 혁신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보 접근성과 소통의 민주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참여를 확대했습니다.</p> <p>그러나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 허위 정보 유포,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특히 기존 산업(레거시)과의 충돌은 플랫폼 발전 과정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겪은 ‘타다금지법’이나 지난 8년간 공방을 이어온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이슈가 대표적입니다.</p>
------------------------	---

질문	플랫폼과 입점업체, 벤처기업들이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
----	---------------------------------

<p>답변 (신순교 국장)</p>	<p>■ 수수료 혜택 제공</p> <p>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입점한 업체에게 초기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이는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p>
------------------------	--

	<p>■ 마케팅 지원 및 프로모션 오픈마켓은 입점업체의 제품 노출을 돕기 위해 마케팅 지원 및 프로모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상품을 홍보하는 이벤트, 할인 쿠폰, 광고 등을 포함합니다.</p> <p>■ 데이터 공유 및 분석 오픈마켓은 입점업체에게 판매 데이터를 제공하여 상품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입점업체는 효율적인 재고 관리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p> <p>■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오픈마켓은 입점업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협업, 경험 공유를 지원합니다. 이는 업체 간의 지식 공유와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p> <p>앞서 말씀드린 상생활동은 작년 공정위에서 발표했던 자율규제 내용을 상당부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부에 와닿는 상생방안들이 중소기업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 더 나아가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의 상호 성장을 이룰수 있는 올바른 상생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p>
--	--

질문	최근 벤처기업 현황
답변 (이민형 팀장)	<p>벤처기업은 현재 약 4만개사로, 이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했습니다. 벤처기업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현재 우리 기업들은 지속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p> <p>협회가 최근 자체적으로 조사한 올해 2분기 벤처기업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들은 지난 1분기에 비해 경기실적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투자유치와 대출 등 자금조달 상황이 많이 안좋아졌고, 매출 등 경영실적은 줄어들고 비용지출은 늘어나고 있어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p> <p>벤처투자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 신규 벤처투자 현황을 보면 2021년 15조 9371억원, 2022년 12조4706억원, 2023년 10조9133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입니다.</p> <p>그러나, 그나마 있는 투자금이 성장기업으로 가지 않고 안정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재 투자환경에선 투자자들이 100억원 매출에 10억원 적자인 기업보다 10억원 매출에 적자 없는 기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벤처생태계는 IPO나 후속투자가 이뤄져야 선투자액 회수가 이뤄집니다. 이런 구</p>

	<p>조를 감안하면 벤처캐피탈들은 최근들어 수익률은 낮더라도 그나마 안정성이 검증되고 IPO가 임박한 기업을 골라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p> <p>또한, 최근 몇 년간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부정적인 이슈가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의 상장심사가 강화됐고, 자본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p> <p>벤처투자시장은 회수시장과의 상호 선순환에 의해 작동되며, 벤처캐피탈 등 기관 투자자는 회수시장을 통한 투자수익 실현이 원활하지 않을 시 적극적 투자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p>
--	---

질문	최근 입점업체 현황
답변 (신순교 국장)	<p>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5월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2조 8,6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특히 음식료품 부문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는 전년 대비 16.1% 증가한 2조 8,989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p> <p>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 및 교통 서비스 부문이 활성화되면서 해당 부문의 거래액은 11.7% 증가한 2조 3,7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p> <p>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사업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은 큰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비록 초기와 같은 급격한 증가세는 아니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p> <p>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각 플랫폼의 특성과 프로모션을 파악하여 자신들의 상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멀티호밍이라고 불리며, 다양한 플랫폼에 동시에 입점하여 매출 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입니다.</p> <p>최근 입점업체들은 다양한 플랫폼에 입점하여 소비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점업체 A는 네이버 쇼핑에서는 건강식품을, 쿠팡에서는 일상 식료품을, 그리고 마켓컬리에서는 프리미엄 식재료를 각각 강조하여 판매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각 플랫폼의 고객층과 프로모션에 맞춰 최적화되어, 지난 분기 대비 매출이 20%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멀티호밍 전략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p>

질문	각국의 AI 패권경쟁 치열한 현 시점에서 자국 플랫폼의 보호와 육성이 중요한 이유
답변 (백지영 부장)	<p>AI 기술 발전과 함께 디지털 기술 기반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플랫폼의 보호와 육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플랫폼은 데이터의 주요 집합체로서 AI 발전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반입니다. 자국 플랫폼이 강력할수록 국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AI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p>

	<p>경제 주권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자국 플랫폼의 중요성은 큼니다. 플랫폼 기업이 외국에 종속될 경우, 당연히 데이터 주권이 약화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위험은 커집니다. 이에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p> <p>최근 각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소버린 AI’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이같은 상황을 반영합니다. 말 그대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AI를 뜻하는 소버린 AI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주권 확보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각 국가가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 인력,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사용해 AI를 생산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p> <p>AI와 같은 혁신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에 모두가 자국 플랫폼을 육성·보호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한 흐름입니다.</p>
--	---

질문	플랫폼법 제정 후 벤처투자시장의 변화 예상
<p>답변 (이민형 팀장)</p>	<p>플랫폼법 제정은 가뜰이나 어려운 벤처투자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p> <p>실제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도 플랫폼법 도입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이 시행되면 주요 스타트업의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플랫폼들은 기술경쟁력을 갖춰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규제가 기술 개발 여력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p> <p>결국 민간 투자가 줄어들면 결국 정부 예산으로 벤처생태계를 떠받쳐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고, 창업 생태계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창업이 성공하려면 자본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투자가 위축되면 창업 생태계도 가라앉을 것입니다.</p> <p>지난 2021년 중국에서 “플랫폼 경제를 위한 반독점 지침(플랫폼 심사지침)” 시행 이후 중국에서의 벤처투자 건수는 26.73%, 새로 진입하는 스타트업 수는 18.72% 감소했다고 합니다.</p> <p>당시 지침이 시행되면서 벤처투자와 신규 스타트업 진입이 줄고, 오히려 경쟁이 위축돼 원래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p> <p>이는 플랫폼 규제가 엑시트를 감소시키고, 스타트업들의 성장 잠재력을 위축하며 정책적 불확실성을 높인 영향이라는게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로스쿨 교수인 소콜 교수의 분석입니다.</p> <p>특히 우리나라 투자 시장은 미국의 투자 시장과 다른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공개(IPO)나 빅테크로의 인수</p>

	<p>합병이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IPO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업은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p> <p>이 때 빅테크가 규제 영향으로 인수합병 여력이 없을 경우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p> <p>대표적인 벤처캐피탈인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지난번 공정위의 플랫폼법 제정 발표에 대해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기업을 한국에서 목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	--

질문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한 벤처기업들의 현장 목소리
<p style="text-align: center;">답변 (이민형 팀장)</p>	<p>벤처기업협회는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에 껍을 씌우는 플랫폼법 제정 움직임에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논의 종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p> <p>벤처기업들은 본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p> <p>또한 초기창업기업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거대 플랫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입니다.</p> <p>그리고, 이러한 규제는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려 벤처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수익 모델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p> <p>또한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중소벤처기업들의 투자활동 동력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법을 제정해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게 하려는 취지이지만 ‘타다’ 등을 전례를 보면 혁신의 싹을 자르면 결국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붙잡는 우를 범하는 사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p> <p>지난 2월에 조사한 벤처기업 대상 조사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벤처기업의 열 곳 중 일곱 곳(68.7%)은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플랫폼법을 통해 중소 플랫폼 사업자들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또한 ‘플랫폼법’이 도입될 경우 ‘정부가 플랫폼 산업의 보호와 육성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전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저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응답기업 90% 이상이 동의했습니다.</p> <p>이어 ‘폐쇄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디지털 기반 신산업 성장 저해’, ‘중복규제로 인한 관련 업계 경영 활동 위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내·외 벤처투자 위축’을 우려한다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벤처기업들의 대부분은 플랫폼법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p> <p>특히, 공정위의 주장인, 플랫폼법 도입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과 활동이 활성화되어 플랫폼 산업의 혁신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벤처기업은 동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p> <p>이렇듯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및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위축되어, 벤처스타트업은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됩니다.</p>

질문	플랫폼법으로 인해 입점업체가 겪을 수 있는 상황
<p>답변 (신순교 국장)</p>	<p>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입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중국의 플랫폼 규제는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쳤습니다.</p> <p>EU에서는 DMA가 중소기업과 신생 기업에게 규제 준수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DMA가 오히려 거대 공룡 플랫폼에 대한 시장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전 규제가 플랫폼 혁신의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p> <p>중국에서는 플랫폼 규제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감소와 신규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자자와 창업자들이 불확실성을 느끼며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과거 탑10 기업으로 꼽혔던 기업들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p> <p>성급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국내 플랫폼 시장과 토종 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에게는 역차별을, 해외 플랫폼 기업에게는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p> <p>현재 한국 시장에는 C-커머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공격적인 진출을 이어가고 있고,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기업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규제에 의한 플랫폼 시장 축소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에 대한 걱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p> <p>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설익은 규제에 의해 토종 플랫폼이 고사하고, 해외 공룡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한번 생긴 규제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여러 역효과를 발생시켜도 복구할 길이 요원합니다.</p> <p>따라서 규제는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규제 일변도의 방식보다는 플랫폼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p>